

## 낙스(NAKS) 교사가 전하는 명언(1)

### 후덕재물 (厚德載物)



황희연 (북가주협의회 회장)

지난봄에 공을 들여 객토한 뒤뜰의 화단에서 9 월이 되면서 그 결실이 확연히 다르게 보여졌다. 넓지 않은 뜰에 화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물을 심어 나름 식물원 수준까지 되어 남편은 멋과 심이 있다며 뒤뜰에 애정을 표현하니 동네 지인들은 철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 사진을 찍고, 부럽다고 하는 반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편함과 여유 없는 공간, 선호하는 식물의 종류에 늘 불평이 잦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의견이 조율되어 뒤뜰은 조금씩 바뀌어 식물의 종류에 내 의견이 반영되어 우선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뒤뜰에서 자라고 수확되니 나의 관심도 폭이 넓고 깊어져 불평은 애정으로 변하니, 잡초로 보였던 갯이꽃의 빛깔에도 반하고, 작디작은 하얀 고추꽃도 눈에 들어오고, 오렌지꽃의 향기도 바람결에 느낄 수 있고 민들레 홀씨에도 꿀 떨어지는 눈길이 갔다.

주역(周易)에 '지세곤 군자이 후덕재물(地勢坤 君子以 厚德載物)'이란 말이 있다. 넓은 땅에 두텁게 흙이 쌓여 있듯이 군자는 자신의 덕을 깊고 넓게 쌓아서 만물을 품으라는 뜻이다.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니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여 쉽게 하찮다고 여겼던 들꽃 들꽃들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이 보이며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니 그 옛날 현인의 글이 이제야 마음에 와닿는다.

이제 20 대 NAKS 가 인수인계 및 시무식을 하며 출범하였다. 김선미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송지은, 이경애, 추성희 부회장님 및 여러 간사님께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훌륭하신 임원진들의 화합된 선한 영향력으로 각 협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자강불식 후덕재물 <自強不息 厚德載物>.

**"스스로 노력함에 힘이 없으며 덕을 쌓아 모든 것을 포용하라. "**